

## 종합기획 1. 학교정책·행정분야 ③ 행정조직

### 통합행정지원실 추가인원 필요

#### 업무과중 ...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지난달 15일에 단행된 행정조직 개편에서 관련 단과대학과 특수대학원의 통합 행정지원실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불교대학원과 불교대학 △행정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원과 경영대학 △인문정보대학원과 국제정보대학원 △산업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 △문화예술대학원과 예술대학의 행정지원실이 통합됐으며, 이를 총괄하는 보직교수 역시 통합 임명됐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지원실의 통합을 넘어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별 분권 행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유사 단과대와 특수대학원의 통합 행정지원실 구축을 통해 해당 단과대와 특수대학원 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과다하게 활용되던 각 단과대와 대학원 교학과의 공간과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으로 인해 10여명의 인력이 절감됐으며, 학술문화관, 동국관 등의 일부 공간이 강의실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통합된 행정

지원실의 보직 교수 역시 단일화시켜 경비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는 '선부터' 시행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지원실 통합의 경우 전체 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 큰 개편인 만큼 해당 부서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과정은 생각한 채 개편이 급하게 진행됨에 따라 업무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강을 맞아 학생들의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개편 이후 직원 수가 감축되면서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4, 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통합 행정지원실은 단과대 학생들을 위한 주간과 대학원 생활을 위한 야간의 업무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여타의 부서에 비해 더 많은 업무가 부담되고 있다. 이는 곧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학생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학교측에서 이번 행정지원실 통합을 통해 현재 본부에 집중된 행정 업무 등과 관련한 결정권을 점차 단과대로 분권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인력 부족은 앞으로의 업무 이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부터 분권행정을 실시해 왔던 성균관대의 경우 단과대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10명의 직원을 행정지원실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기획조정실에 한 관계자는 "분권 행정이 이뤄지게 되면 그 만큼 해당 직원의 수도 알맞게 배치돼야 실시 조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된 대학과 대학원 간 행정지원실 통합 정책이 단기 간의 인력과 경비 절감 등의 이득이 아닌 분권 행정을 통한 학내 전반적인 조직의 효율성을 꾀하는 개편이라면,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제반 여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이동철 · 신용화 총학생회 후보 출마 사퇴

### "안타깝다 ... 도덕적이어야", 학생들 의견 갈려

37대 총학생회 후보자로 입후보한 이동철 · 신용화 후보가 지난 25일 후보자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선거운동과정에서 공동선거운동본부(총학생회, 사과대, 문과대, 야간강좌)가 정후보자로 입후보한 이동철(독일4)군이 연루된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해 문제가 된 것이다. 공동선거운동본부는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학생회 후보를 사퇴한 것이다.

이동철 · 신용화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난 성추행 사건과

해결과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추천인 서명판은 물론 선거운동 선전물과 유인물에도 기재했다. 또한 학내 양성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을 공약으로 정했다. 이어 900명의 학생들에게 추천인 서명을 받아 지난 14일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출마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중, 지난 주말 사회과학도로부터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자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회과학도

지난 23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2차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피해자 요구사항 이행 전까지 공동선거운동본부선거운동 중지를 요구했다. 현재 사과대 유민지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정한 상태이고 공동선거운동본부선거운동본부는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성폭력 교육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서진주(행정3)양은 "과오가 있다고 해서 총학생회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사퇴가 안타깝

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규(불교3)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사람인 이상 무엇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철 · 신용화 후보의 사퇴로 37대 총학생회 보궐선거는 무산됐지만, 단과대와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는 예정대로 29일부터 3일간 각 단과대 로비에서 치러진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 보궐선거 무산과 관련해 총대의원회 비대위의 관계자는 "최최상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시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기관업적평가 실무위원회 구성

### 효율적 자원배분 · 업무관리 능력제고 목적

지난 23일 2004학년도 기관업적평가를 진행할 실무위원회(위원장=유석천·경영학)가 구성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사정평가 자료와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서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시에는 대상기관을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마감은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이번 주에는 각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업적평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으로 최우수·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결과를 개인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부서별로 차기년도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2004학년도 기관업적평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관별 업무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서 지난 2000년 팀제조직체제개편 이후 부분적으로 실시돼 왔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교육강화를 위해 평가집단을 기존 단과대에 서 학과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기관업적평가는 지난해 시행 발표 때, 평가기준 객관성과 실용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팀 관계자는 "평가 작업과 함께 부서별 제안을 고려해 2005년도 기관업적평가 심사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별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1군(학과)=교육의 내실화 및 연구 활성화 △2군(교학과)=행정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3군(중앙행정부서 및 T.F.T)=행정효율화 및 업무추진 성과 제고 △4군(부속기관)=행정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5군(부설연구기관)=연구활성화이다.



음수시간?! ... 지난 16일 중앙도서관 지하 2층에서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 그 첫번째 로터스 현악4중주 공연이 열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큐슈산업대학과 학생교환 협정

우리대학이 지난 3월 2일 자로 일본 큐슈산업대학과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체결한 일반교류협정에 근거한 것이며 다음 학기 10월 중에 학생을 선발해 내년부터 교류하게 된다.

시행세칙 주요 내용은 △교류인원=년 1명(경주캠퍼스 포함) △자격=학부과정 재학생 △학비 상호 면제 등이다. 기타 장학금 지급 등 체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초록발표 및 논문 접수 진행

200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청구논문 초록 발표회가 다음달 1일까지 각 학과별로 진행된다.

초록발표 및 학위논문 청구 자격 조건은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24학점 이상 취득과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현재 학기 취득 예정자)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자 등이며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 △연구논문 발표실적 100% 이상인자 △지도교수 위촉원 · 변경원 및 연구계획서 제출 후 2학기가 경과된 자 등이다.

초록발표 후 석 · 박사 학위 청구논문 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이틀간 학술관 1층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생협 오는 1일 창립 1주년

### 경품권 추첨 · 물품 할인행사 마련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이 다음달 1일 법인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조합원들을 위해 각종 행사를 준비했다.

창립기념일인 당일은 △상록원 2층 식당 △동국관 식당 △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을 이용하는 학생을 위해 3천5백 개의 음료와 떡을 준비했다. 또한 기념일부터 8일동안 생협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응모권을 나눠줘 오는 12일 다량관에서 추첨을 한다. 응모권은 다량관 매점, 상록원 매점, 동국관 매점 등 5곳에 비치돼 있다. 경품내용은 △1등(3명)=생활문화 유적답

사 여행권 △2등(1명)=4박 5일 일본 배낭여행 △3등(10명)=복사가드 5천원권 10매 △4등(120명)=매장이용권 1만원, 2만원 할인권 등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 3등 이상 당첨자는 생협조합원에 가입돼 있어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관 식당은 △테이크아웃커피(1+1행사) △여러 메뉴 할인행사 등을 다음달 8일까지 한다. 또한 생협 임대매장은 다음달 15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미용실은 20%할인권을 200장 배포 △서점은 어학관련, 재고도서 중심으로 할인판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 '희망' 동국으로 가는 길

##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29, 30, 31일 단과대 학생회 보궐선거 실시—  
해당 단과대:문과대, 사과대, 공과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 복합 문화공간 충무아트홀 개관

## 우리학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서울 시내 한복판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섰다. 중구청이 흥인동에서 자지구 최고의 공연, 체육시설로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마련한 충무아트홀이 바로 그것이다. 충무아트홀은 지난 25일 성낙환 중구구청장, 홍기삼 총장, 이명박 서울시장, 양드래그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관식을 치렀다. 개관식 식전행사로 오후 1시 30분부터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짚이정식밴드 공연이 진행됐으며 공식행사는 오후 2시부터 △개회선언 △경과보고 △축사 △서울시무용단 공연순으로 치러졌다. 또한 식후행사로 여성전자현악4중주와 김태곤과 일행들 공연이 이어졌다.

2774평의 땅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사업비 948억원을 들여 건축된 충무아트홀은 대극장(809석)과 원형무대를 갖춘 소극장(327석), 갤러리(114평), 컨벤션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18타석의 실외골프연습장과 농구·배구 등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는 임대 위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사업 일환으로 우리학교가 체육시설 운영을 맡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는 우리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다.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은 대규모 행사와 △농구·배구·핸드볼경

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대체육관 △유아놀이 별도 마련된 25m라인의 해수풀 수영장장과 사우나시설 △비거리 40m의 옥외 18타석과 19타석의 실내연습장 및 퍼팅연습장을 갖춘 골프연습장 △유도 검도 태권도 등 호신술과 요가 명상 등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될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마련돼 있다. 한편 개관을 맞아 한달 여 동안 22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 페스티벌은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목되는 프로그램은 국내의 4개 오케스트라가 차례로 마련하는 교향악 시리즈와 국내의 연주자들



이 5회에 걸쳐 선보이는 실내악 시리즈다. 또한 한국에 많은 팬을 거느린 영국의 리베라 소년합창단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수잔 바가의 내한 공연도 눈에 띈다. 교향악 시리즈의 첫 무대는 29일 코리안 심포니가 장식하며 4월1일에는 서울시교향악단이 장윤성 지휘로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과 '교향곡 1번'을 비롯해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를 선보인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신임 이상일(토목환경공학) 교무처장 인터뷰

# “우수대학 벤치마킹 등의 연구통해 전공교육 프로그램 강화할 것”



등 학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를 수정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전공교육프로그램 운영체계 검토 및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됐다. 따라서 교무처에서는 전공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됐는데, 국내 주요대학과 세계 우수대학의 전공교육프로그램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벤치마킹 작업을 통해 배움점이 있다면 배우고 우리학교 특성을 잘 반영해 전공교육강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 번째로 교육업적평가 결과 보상 및 보완이다. 이는 우리학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처음으로 고안한 제도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수들에게 연구업적 향상만을 요구해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교육업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교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다. 이 번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교무기획팀의 역할은 = 96년 학부제 실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다시 학과제로 되돌리는 단과대가 생

기는 등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이다.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으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심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 때마다 문제가 되는 수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은. = 수강신청과 관련해 생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선 강의 시간표가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는지 점검해볼 예정이다. 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물리는 교양필수 과목의 경우 강좌를 최대한 늘리고 영역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수강신청제도와 관련해서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수강신청을 연단위 운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일부 전공은 주 전공 학생이 수강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교수회 30일 비상총회 개최

## 교권 및 기본권 보호 위해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는 지난 금요일 교수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의원회의 결과 '교권수호 등을 위한 비상교수총회' 소집을 의결했다. '비상교수총회'는 오는 30일 4시 30분에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25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연구지원제 및 연구업적평가제도,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 제한제도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특히 교수들은 대의원회의에서 △급여(연구비+기본급) 7.8% 인상 △정기 급여인상 외에 직급별 연구비 상향조정 △군경력 호봉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 급여 개선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년보장교원 호봉승급 제한제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오는 수요일에 열리는 ‘교권수호 등을 위한 비상교수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려가 봅시다” ... 시설관리팀(팀장=박정훈)이 중앙도서관 뒤편 테니스장에서 충무로까지 연결되는 길을 만들었다. 이는 학교로 오는 학생들을 분산시켜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 야구부 내일 한양대와 경기

## 농구부 28일·축구부 다음달 2일 경기 예정

우리학교 야구부(감독=김학용)는 내일(29일) 오전 9시 30분 동대문야구장에서 한양대와 경기를 갖는다. 현재 야구부는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해 예선리그를 치르고 있다. △인하대 0:1 패 △동의대 5:5 무 △원광대 9:8로 승리를 거뒀으며 앞으로 계명대와 경희대의 경기가 남았다. 조 3위안에 들어가 결승토너먼트 진출권을 획득한다. 또한 농구부는 'MBC에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해 오늘(28일) 오후 3시 40분 중앙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총 11팀이 출전해 2조로 나뉘어 상위 3팀이 결승리그에 오르게 된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성광관대 △한양대 등 5팀과 한 조에 속해 있다. 한편 축구부(감독=김용해)도 다음달 2일부터 '협멜코리아배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다. 첫 경기는 다음달 2일 서귀포시에 있는 강창학구장에서 동의대와 갖는다. 총 58개 팀이 출전하게되는 이번 대회는 16개조로 나뉘어 경기를 갖는데 조 2위 안에 들어가 결승 진출이 가능하다. 우리학교는 △광운대 △탐라대 등과 같은 조에 속해 있다.

# 송희자 교수 등 도서기증

지난 7일 수학과 송희자 교수가 우리학교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에 '한국법제사' 등 서적 130여권을 기증했다. 또한 교보생명에서는 우리학교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도서관

에 1천여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지난 14일 1차로 760여 만원 상당의 여행자료, 참고 서적 등 400여 종의 책이 기증됐으며 다음 달 중으로 2차 기증 도서가 들어올 예정이다.

# 칭찬합시다

## ③ 미소와 함께 사는 원홍관 용역직원 이영순씨



본사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제작한다.

'칭찬합시다'의 두 번째 주인공 김인희씨가 추천한 원홍관 용역 노동자인 이영순 씨. 그녀는 사람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을 하며 학교 내의 보이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청소한다. 나 같이 별 볼 일없는 사람에게 무슨 인터뷰를 하나며 미소를 잃지 않는 이씨. 그녀를 만나봤다. - 칭찬받은 소감은. =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장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매번 제 시간에 나와 청소 했을 뿐이다. 괜히 칭찬받게 되니 당황스럽다. 앞으로 더욱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 들이겠다. -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 내가 힘들다고 얼굴 찡그리면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다. 일하는 동료들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대화면서 기쁨을 주고 싶을 뿐이다. 이전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가정 형편 탓인지 학생들을 보면 불끈불끈 힘이 난다.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도와주고 싶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 2006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00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8. 2월 졸업 예정자
  - 입원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88. 2. 28 ~ '80. 3. 1)
  - \*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3. 14 ~ 4. 23
-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바. 사진 4매(4×5cm).
  - 나. 수능성적(원점수) 1부. 사.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다.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아. 가산점 증명서류 21부
  - 라.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마. 효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5. 3. 14 ~ 4. 23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5. 4. 25 ~ 4. 30
신체검사		2005. 5. 9 ~ 5. 21
면접평가		2005. 5. 9 ~ 5. 21
신원조회		2005. 6. 13 ~ 8. 27
최종합격자 발표		2005. 8. 28 ~ 9. 3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5. 8. 29 ~ 9. 3
-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 (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조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 (전화, 서울 2260 - 8537)

## 제 112 학생 군사 교육단

## 2005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2학년(000명) 남학생
- 지원자격
  - 입원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8. 7. 31 ~ '80. 8. 1일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3. 14 - 4. 23
-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서약서 각 1부
  - 나. 수능성적(원점수) 1부
  - 다.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라.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마. 복부연장 지원서 1부
  - 바. 효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 사. 사진 4매(4×5cm)
  - 아. 재정보증 관계서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차. 가산점 증명서류 각 1부
-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군장학생
지원서 교부 / 접수		2005. 3. 14 ~ 4. 23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5. 4. 25 ~ 4. 30
신체검사		2005. 5. 9 ~ 5. 21
면접평가		2005. 5. 9 ~ 5. 21
신원조회		2005. 6. 13 ~ 8. 27
최종합격자 발표		2005. 8. 28 ~ 9. 3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5. 8. 29 ~ 9. 4
- 특전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 "가"점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료보조비 지급 (연2회 등록금 실비 전액 지급)
  - 입관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 박사 취학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기혼자 군속소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로 이용 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 (전화, 서울 2260 - 8537)

## 제 112 학생 군사 교육단

## 2005년도 헌병부사관 모집

- 모집인원
  - 1차 : 00명(남), 2차 : 00명(남00명, 여0명)
- 지원자격
  - 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 나.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 1) 1차 : 2005. 10. 15(토) / 2차 : 2005. 12. 31(토) 기준
  - 다. 신체등급 2급 이상(문신, 자해흔적 없는 자)
    - 1) 신장 : 남자 164cm, 여자 157cm 이상
    - 2) 시력 : 나안 0.1, 교정 1.0 이상
  - 라. 고학력자 및 관련학과(경찰행정학, 법학)2년 이상 수료자 우대, 각종 자격증(어학, 전산, 토목, 회계, 화공분야 등) 소지자 우대
-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1) 1차 : 2005. 4. 1(금) ~ 5. 2(월) / 2차 : 2005. 6. 1(수) ~ 7. 2(토)
  - 나. 접수장소 : 인터넷 www.amy.mil.kr
- 특 전
  - 가. 교육 수료후 군사법 경찰관으로 임명
  - 나. 관련학과 전공자 및 성적우수자 등 수사관 선발 / 근무
  - 다. 경호 및 MC승무원병 근무
  - 라. 미 8군 헌병부대 / 대통령 경호실 근무
  - 마. 학위과정(학· 석사) 국비위탁교육 기회부여
  - 바. 공무원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
- 문의 처
  - 헌병대표전화 : 080-077-0112(수신자 부담)
  - 「지역헌병대 자동연결」
  - 헌병 감 실 : (02) 505-1812, 1817
  - (042) 550-1812, 1817

# 단과대 보궐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2005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와 졸업준비위원회 선거 입후보자를 만나 공약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거는 29일부터 3일간이다.

## 동약로

### 탈 소탐대실

“다음해 우리학교 입학정원은 감축될까?”

“국가지원금을 받으려면 입학 정원 감축이 꼭 필요한데, 어느 학교 정원이 감축될까?”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를 둘러싸고 각 단과대학들이 서로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 단과대는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 전입교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방향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는 모든 대학지원 사업 선정에 중요한 선정 요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학교 특성화지원사업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대는 2000년부터 6년간 입학정원을 총 1,650명이나 감축했으나 급격한 정원 축소에 대한 단과대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내년에는 올해 입학정원과 비슷한 규모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 재정의 80%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학교와 같은 사립대학에서 입학정원 감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입학정원 감축을 논의 하는 관련자들이 어느 때보다 대의를 위해 한 발자 물러서는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교와 관련단과 대학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공정하게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학부 입학정원 감축보다 먼저 진행되던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오히려 늦은감조차 있다. 특히 대학원 미충원 인원 50명을 감축할 경우 신규교원 약 10여명 충원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학부 입학정원 감축 문제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보조금 증액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할 것”

- 당선된다면 어떤 학생회를 만들 것인지.

= 예전에는 학생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회가 준비하는 대동제·단과대 축제 및 여러 행사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모여야 가능한 것인데 그 기초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러한 기초를 세우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했다.

- 주력할 사업은.

= 무엇보다 문과대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도록 만드는 데에 힘쓸 것이다. 먼저 학기 초에 학부단위의 대규모 행사를 가진으로써 문과대 전체가 서로 얼굴을 익혀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 학과단위 모임 이후 학생들의 타학과에 대한 무관심과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박경우(사학4)

또한 단과대 차원에서 개최하는 행사 수를 늘려 갈 것이다. 현재에는 대동제와 명진제전 외에 여타 행사가 거의 없는 상태다. 심지어 그조차 주점일색으로 행사의 의미자체가 퇴색되기 일췌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여러 행사를 강구하고 있으며 문과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또한 명진관을 함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모르는 이과대와 연계해 행사를 기획·추진하겠다.

## “학생 권리찾기 노력할 것”

- 출마계기는.

= 지난해 문과대 학생회가 꾸러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것이 학생회가 없어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가 많이 무너지고, 학자사인의 해결도 미흡했다. 때문에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문과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출마했다.

- 선거모토와 의미는.

= 모토는 '경계를 넘어서 명진을 꾸꾸다'이다. 내 주변에 경계를 치고, 그것을 넘지 못해 전체가 아닌 자기주변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약화라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이제 다시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우리 스스로 학교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 의미를 담았다.

-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차주철(독어독문3)

= 이번 학기, 등록금 7% 인상이 일방적으로 고지됐다. 등록금 인상 협의와 관련해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침해당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

또한 영문학과, 중문학과 등에서 복수전공자 혹은 타학과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수강 신청해 정작 전공자들은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강의확충 등을 요구해 보다 질이 좋은 수업 만들기에 힘쓰겠다.

## “단과대 학생회 체계 세울 것”



이한동(기계공3)·우영진(기계공4)

- 선거 구호 '다시 출발하는 공과대학'의 의미는.

= 공대는 5년간 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현재는 학생회의 체계 역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각 학과를 운영하는 과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단과대내 학생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우리가 대표로 당선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과대를 이끌어 나갈 생각에서 구호를 결정하게 됐다.

- 공과대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 공대의 경우는 비교적 학과별로는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비해 단과대 학생회의 활동은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학과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를 같은 기간에 한 장소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단과대 내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는 원흥제를 개최할 생각이다.

- 당선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 현재 공대 내에는 학생회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은 만큼 학생회가 서면 바로 집행부 학생들의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른 단과대에 비해 소모임 활동이 활발한 점에 초점을 두고 집행부 내에 소모임 관리 위원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 “일방적 학교행정 반대할 것”



김윤진(정통(야))

- 지난해에 이어 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게 된 계기는.

= 지난해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개 강좌를 제외한 야간강좌가 폐지됐고 이에 야간강좌 학생회 일을 하는 학생들은 의욕을 상실했다. 야간강좌 학생회 자체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새터를 준비하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학생회를 꼭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다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회 활동을 할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야간강좌 학생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다.

- 올해 야간강좌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선 야간강좌 폐지는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작업의 추진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맞서는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학생회 혁신 사업도 펼쳐나가야 한다.

무너진 학생회 체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과학생회장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학생들에게 믿음을 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 졸업준비위원회 보궐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 “취업난 돌파구 찾을 것”



정현준(토목공4)

- 입후보한 이유는.

= 이전부터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표역할을 해 보고 싶었다. 이에 우리학교 4학년을 대표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제작과 취업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준비위원회에 매력을 느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고 싶고 기업, 타대학 등 외부에 우리학교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 서울 20여개 대학의 졸업준비위원회와 연대해 취업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볼 것이다. 이에 취업캠프를 중점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캠프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3박 4일정도 합숙하며 모의면접,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취업 부분의 지원에만 치우치지 않고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 이 행사가 잘 진행되면 취업박람회로 확대시킬 생각이다.

이밖에도 취업준비생들의 약해진 체력과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학내 축구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어느 대회와 다르게 참가비를 적게하고 상을 확대시켜 취업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상품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학교를 외부 회사에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 일류동국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후원금 종류**

100만등당기 기금, 발전기금, 불교병원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단원기금, 동국사랑저금기금, 수증음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기부자님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참여방법**

일시완납, 월납,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개인, 법인 및 단체 명의로 후원 가능  
 계좌이체(CMS)를 통한 편리한 방법 가능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의 수증음품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T 02-2260-3794~5  
 경주캠퍼스 기획처 대외협력팀 T 054-770-2100  
 ARS 기금결제 060-7000-119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 연구·교육업적 평가 지속적 보완 필요

##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 분위기 이끌어내야

교수들의 연구능력 고취를 위한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제도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업적평가제도가 확정돼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교수들이 새롭게 변경·제정된 두 제도에 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두 제도 모두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2일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린 '연구업적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홍기삼 총장은, "대외평가 부진의 모든 원인이 교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교수평가 부문 순위도 낮은 만큼 연구업적 증가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두 제도가 일정기간 동안 예비시행을 거치지 않고 확정돼 실시됐다는 점과 연구 성과금을 명목으로 월급이 동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수사회에 성과급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을 일으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교수들도 있다.

그러나 이과대의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성과급 외에도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 학교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업적 평가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수들이 이 제도를 성과급 시스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존에 지원받아왔던 지원금액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저명 논문 1편을 썼을 때는 기존의 제도보다 지원금이 줄어들지만, 2편 이상을 썼을 때는 오히려 지원금이 제도 개편 전보다 늘어난다"며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논문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과대의 한 교수는 "좋은 논문은 1년에 1편 이상 쓸 수가 없다"며 "제도가 양적인 면에 치중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 학문 특성 고려해야

한편 불교대의 한 교수는 "학문 특성상 불교학의 경우 논문을 쓰는 것보다 고전을 번역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학문 특성을 고려한 학교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학과 교수들은 학과 특성상 논

문을 실을 수 있는 학진등재지가 부족하며 학교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학진등재후보지가 되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학교차원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업적 평가의 경우 '교육강화'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학교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도입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평가방법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많은 교수들이 평가지표 단순화를 요구하고 있다. 평가지표가 복잡하고 평가를 위해 처리해야 하는 부수적인 작업들이 많아 자칫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원 수업은 교수들의 연구성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의 관계자는 "공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BSM의 경우 이보다 더 엄격한 복잡한 평가지표로 실시되고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겠지만 교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합의 이끈 제도 돼야

또한 세부평가 항목 중 담당강좌의 개수와 수강생수에 따라 배점이 매겨지는 항목이 있어 교육의 질 향상과 모순되는 부분이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무처의 관계자는 "책임시간을 충족했을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최대점수가 50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많은 교수들이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업적평가와 교육업적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명확한 지표가 우리학교의 열악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쇠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또한 일방적인 운영방식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추후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사설

## 올바른 학생회 건설은 중요하다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후보자 사퇴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선거무산에 연이어 학생대표 선출이 난항을 빚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시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미 늦어진 등록금 협의, 학생들이 만들어오는 대동제 등 학생회 주요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다.

학생회는 학교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면서 학교발전에 불합리한 부분을 견제하는 점 말이다. 총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지 1년이 되면서 이러한 목소리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있을 때 잘하자"는 말이 있듯이, 현재는 중요성을 못 느끼지 몰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가 없다면 불편함이 따를 게 분명하다. 학생들은 진정 자신의 대표기구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학교당국도 학생회 건설을 도와야 한다. 지난해 삭감된 총대의원회 장학금을 복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장학금이 삭제되면서 학생들이 대의원 일을 하기 꺼려 학생회 선거를 움직이는 총대의원회 건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실 리모델링을 이유로 비대위원이 있는 총학생회실 내부를 허문뒤 수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공사진행의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다. 올바른 학생회가 건설되려면 그 분위기부터 살려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회 건설은 중요하다. 학생회가 학교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다음 보궐선거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 올바른 선거활동을 진행하길 기대해본다.



독도사랑... 국학원이 주최하는 '우리 땅 독도' 사진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지하철충무로 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도의 자연풍광 사진뿐만 아니라 독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헌자료와 옛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총학생회 비대위 등록금 7% 인상 반대

## 재단 전입금 예·결산액 차이 문제로 지적

지난 17일 경주캠 전체학생총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돼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며 분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총 2,150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분관을 비롯한 강의실

점거농성을 7일간 지속했다.

현재 경주캠 총학생회는 수업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아래 지난 23일 부총장실과 총장실은 제외하고 점거농성을 해제한 상황이다.

이번 경주캠에서 일어난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등록금 인상은 매년 학생들과

학교가 마찰을 빚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우리학교는 지난해보다 7%인상된 등록금을 고지했고 현재 등록이 마감된 상태다.

학문 분야별 등록금 측정액을 타학교와 비교해 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서울시 25개 대학 중 16위, 이학·체육 계열의 경우 서울시 23개 대학 중 17위, 공학·예능 계열의 경우 서울시 22개 대학 중 15위를 기록해 서울시내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측정액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의학 계열의 경우 서울시 11개 대학 중 4위, 한의학 계열의 경우 전국 11개 대학 중 2위를 차지해 타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등록금이 상위수준임이 확인됐다.

또한 우리학교 등록금 7%인상은 서울 사립대 평균 6.62%보다 0.38% 높고 전국 사립대 평균 4.8%보다는 2.2% 높다. 특히

서울대, 중앙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울시내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 또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올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물가인상률 △교원임금 인상 △100주년 행사 준비금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 축소 책정 △재단 전입금 감소 △등록금 수입 의존율 증가 등이다. 특히 재단 전입금의 경우 지난 2001~2003년까지 해마다 예산 편성액보다 결산액이 감소해 학생들에게만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정 부담금의 경우도 그동안 실제로 결산된 금액은 예산 편성액보다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총학생회 비대위는 단과대학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투쟁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b>동대신문</b>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부주	장성재	
편집국장	정경훈	
편집장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a href="http://www.dgupress.com">http://www.dgupress.com</a> 인터넷 동국대학교 <a href="http://www.dongguk.edu">http://www.dongguk.edu</a>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창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동국대학교 출판부 신간 도서 안내

<http://home.dgu.ac.kr/~book> 전화 : 02) 2260-3483~4 팩스 : 02) 2268-7851

### 불교생태학총서① 불교생태철학



김종욱 저/신국판/25,000원  
'연기-공-자비'라는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상호의존성-비실체성-상호존중성'이라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불교생태철학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부록에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불교생태학의 연구 성과를 목록을 총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현대불교학연구사



J.W.드 용 저/강종원 편역/20,000원  
고전어와 현대어를 포괄하여 10개국어 이상의 문헌이 독해 가능했던 불교문헌학의 대가 드 용이 로마시대 이래 서양에서 이어져 온 불교 연구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전문가들에게도 불교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중요한 연구제거들을 조망해 줄 수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연구사이다.

### 1분 앞으면 1분 부처



니시지마 와후 저/유키미카 옮김/7,000원  
[불교문답]과 [좌선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 권으로 묶은 것으로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그림으로 익히는 좌선법이다.

### 태산심법(胎産心法)



염순세 저/김동일·이태근 옮김/22,000원  
의사의 과실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의학연구로 극복한 유의(儒醫) 염순세(閔純世)에 의해 1730년에 지어진 책으로, 이 책에 담긴 이론과 처방은 현대의 임신관리, 태고, 분만, 산후관리 등의 부문에서도 변함없이 실제적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어 한의과대학 학생과 임상 한의사는 물론 여성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참고 가치가 있다.

### 역주 농암잡지(譯註 農巖雜識)



김창철 저/오용원 옮김/20,000원  
농암(農巖 김창철: 1651~1807)이 28세(1678)에서 57세(1707) 사이에 저술한 잡록류(雜錄類)로서, [내편 1(內篇一)] [내편 2(內篇二)] [내편 3(內篇三)] [외편(外篇)] 등 모두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범죄생물학



김보환 저/신국판/14,000원  
서구에서 이루어진 많은 범죄생물학의 이론적 연구경향들을 소개하고 유전적, 생화학적 요소들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 영상의 발전



마츠모토 토시오 저/유양근 옮김/12,000원  
일본의 영상작가인 마츠모토 토시오(松本俊夫)가 펴낸 첫 평론집으로 영화에 대한 관점을 장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문제로 다루면서 다큐멘터리와 초현실주의의 결합이라는 새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시장사



조병찬 저/신국판/37,000원  
저자의 기존 저서들을 확대, 증보하여 상고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장사의 변천과정을 다루었고, 해방 후 농수산물시장과 생필품시장 부분은 1990년 이후의 격변하는 최근의 시장경제를 연구한 것이다.

### 국어작문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편/10,000원  
대학생으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글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과 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바른 문장 쓰기, 교양인의 글쓰기, 보고서 및 논문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수록해 다시 한번 해설해 준다.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오만과 편견 (원제 : 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지음 / 전승희 옮김. - 민음사, 2003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류작가로 꼽히는 제인 오스틴 의 대표작. 아름답고 발랄한 주인공 엘리자베스 벤틀과 '오만방자한' 남자 다아시와의 관계 속에서 첫인상과 편견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사실과 다를 수 있는지를 부드러운 로맨스를 통하여 그려낸 작품.

영화로 더욱 유명한 '브릿지 존스의 일기'의 원형은 이 작품이라는 설도 있음.

인문과학실 소장. (823 A933p운 - 지정도서 코너)



시간의 역사  
(원제 : The illustrated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호킹 지음 / 김동광 옮김. - 까치, 1998

루게릭 병에 걸려 육체적 기능이 거의 마비된 천재로 더욱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서술한 우주역사에 관한 서술. 우주의 시작과 끝에 관한 과학적 해석을 통하여 물리학의 이론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 책을 기점으로 본교에서 우주물리학의 관심이 높아져 국내 최초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자연과학실 소장. (523.1 H3922김 - 지정도서 코너)



민주주의와 교육  
(원제 : Democracy and education)  
존 듀이 지음 / 이흥우 옮김. - 교육과학사, 1996

교육철학의 성격을 규명한 최초의 저서. 그 이전까지 교육에 관한 철학적 입장은 여러 차례 표명이 되었으나 듀이에 이르러 '교육철학'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교육철학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민주사회에 작용하는 이념을 추출하여 진술하고 그 이념을 교육의 실제문제에 적용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라고 적고 있다.

사회과학실 소장. (370.1 D619d01a - 지정도서 코너)



판단력 비판 (원제 : Kritik der Urteilskraft)  
I. 칸트 지음 / 이석운 옮김. - 박영사, 1988

칸트의 비판철학 체계를 구성하는 이른바 3대 비판서(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의 마지막 저서로, 그의 비판철학 체계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한다.

오성(悟性:自然)과 의지의 중간에 판단력이 있으며, 이것이 반성적으로 작용할 때 생기는 반성적 판단력의 작용을 다룬 것으로, 구체적으로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그의 비판철학체계를 완성하였다.

인문과학실 소장. (193 K16k012 - 지정도서 코너)

자료제공=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 우울증은 왜 걸리나?

질병(illness)은 증상(symptom)과 증후(sign)를 가지고 표현한다. 그리고 질환(disease)은 증상(symptom)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으로 말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우울증을 18세기부터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신체 질병에서 암(cancer)을 비정상적인 세포의 지속 성장으로 오는 장애로 표현할 수 있듯이 우울증은 기분장애(mood disorder)로 분류한다. 기분(mood)은 특정의 정서(emotion)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서는 외부의 사건이나 내적인 사고에 대한 반응인데 우울증처럼 기분장애는 특정한 정서가 수개월동안 지속됨을 말한다.

두렵거나 슬프거나 기분이 저조해지는 정서는 일상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병적인 상태나 질환으로 판단될 때는 이 지속되는 정서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간이 무능력하게 될 때이다.

## 우울증에 대한 문화권의 차이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화권별로 차이를 드러낸다. 서양에서는 환자로 판단되는 우울증 환자는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과 계속되는 절망감, 그리고 자살에 대한 집착 등의 심리학적 증상과 함께 두통이나 복통, 빠른 심장 박동은 여러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고 보고하는데, 서양이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인데 반해 '감정의 억제'를 높이 사는 동양의 억압문화에서는 위

에서 열거한 신체적인 증상을 먼저 호소하며 전문가를 찾는다.

1995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hwa-byung'(화병)을 정신의학용어로 공식 등록하며 화병을 한국민속문화증후군의 하나인 분노증후군으로 설명하고 분노의 억제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중년의 주부들에게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 다양한 원인분석 활발

1980년대부터 발달해 온 뇌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생물학적 해석으로 살펴본다면 뇌 안에서의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과 호르몬의 수준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음을 많은 사례를 통해 밝혀왔다.

노르아드레날린(epinephrine)과 세로토닌(serotonin)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으로 우울증이 생긴다는 견해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자면,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경우 널리 알려져 사실이다. 인간이 외적 위급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신체는 자율신경 체계의 활동으로 상황에 맞서거나 아니면 도피 반응을 보인다.

부신(adrenal gland=생명유지에 매우 중요한 내분비기관의 하나)에서 분비된 아드레날린(adrenaline=근육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긴

장과 위협에 대비하게 함)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부신에서 코르티솔(cortisol)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뇌 반응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뇌'와 관련있음을 추측

생화학적으로도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검사를 이용해보면 많은 우울증 환자에게 코르티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농도의 코르티솔은 뇌의 신경세포 뉴런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뇌의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뇌의 편도체는 기억정보의 통합과 분해와 같은 과정의 제어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정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뇌의 부분으로 생각된다.

우울증이 이런 편도체와 인지와 관련된 다른 뇌의 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부의 자극과 사건은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적 기억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정적 피드백고리(feedback loop)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더욱 더 강화된 헤어날 수 없는 감정의 수렁이라 말할 수 있다.

신경전달물질의 농도에 대한 지식은 정적 피드백고리를 끊는 것으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된다.

# 우울증과 자살의 연관성

한 여자연예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해 다시금 우울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중 하나로 우울증을 꼽았다.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8%인 약 320만명이 매년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울증은 '현대인의 역병'이 돼버렸다.

우울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절망감으로 우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심각한 것은 숨겨진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상 중에 자살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자살자의 45~70%가 우울증 환자였으며 우울증 환자의 20%가 자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의학적 질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스트레스와 사회 환경적 요인스트레스가 복합적인 원인이 된다.

## 우울증의 심리적·사회적 원인

우울증의 심리적 요인스트레스에 대해 심리학자 에릭슨(Erickson)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 적절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확실한 상태를 느끼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에 직면하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 우울증을 겪게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이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환경적 요인스트레스에 대해 사회학자 뒤르켁(Durkheim)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 '자살론'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위기, 또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갑작스런 변천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때에는 사회가 기준에 담당했던 정

치적·경제적·사회적 여러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구에 대한 규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기존의 잣대는 망가졌지만 새로운 잣대를 당장 만들 수는 없다. 또한 공공의식이 사람과 사물들을 새로 정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고삐 풀린 여러 사회적인 힘들이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 당분간 모든 규제가 불충분한 상태가 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합리적인 요구·희망과 무절제한 요구·희망의 한계는 미지수가 된다.

특히 경제적인 긴장이나 요인에 의한 환경변화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열악한 상태로 몰아넣는 일종의 재분류현상이 진행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를 줄이고 필요를 억제하며 자제력을 기르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강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그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견딜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열망과 절망 앞에는 어떠한 구속도 없게 되며 서서히 우울증의 그림자에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일단의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중첩적인 그물이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관습들, 예컨대, 도덕적 헌신, 정서적 심오함, 역사·전통적 정체성 등등을 공유, 활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계속 유지, 강화시킨다. 따라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관련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선을 창출한다.

한국의 경우 가족중심주의적 관계 매커니즘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가족중심의 정서적 지지·위안 및 치료 기능의 쇠락으로 인한 심인성 질환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 핵가족 증가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화 지체 현상과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증가, 노인들의 소외·고독의 증가와 이로 인한 우울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주요 경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오면 크게 3가지 패턴을 보인다.

첫째,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용인된 방법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긴장상황을 극복해나간다.

두 번째, 갑작스럽게 닥친 긴장상황에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긴장상태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범죄나 일탈 등 사회가 금지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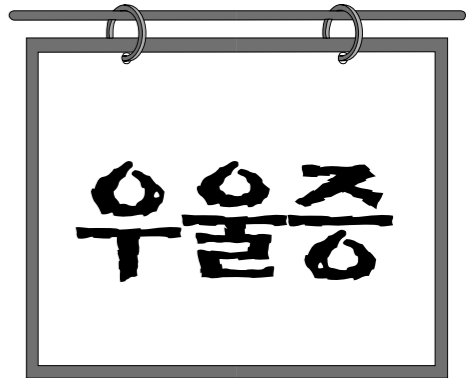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긴장상태를 겪으면서 사회가 용인하는 방법과 사회가 금지하는 방법 모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관습적 또는 비판습적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사회적 불안기제를 느끼는 상황에서 나아가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개인·사회차원의 극복 방법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증을 유발한 갈등요인을 밝혀내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우울증의 치료에는 가장 먼저 약물치료가 우선이지만,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 이주의 학술 키워드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키워드 선정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와 여러 화학 물질 등의 기능과 이에 대한 뇌의 구조상의 반응은 아직도 많은 연구를 연구자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9@dongguk.edu

우울증이 내·외적 갈등 즉, 심리적·사회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선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당적인 몸짓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힘과 의지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주는게 중요하다.

또한, 사회나 민간 차원의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사회분위기도 중요하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0년 국민 보건경제연구소(CREDES)가 16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9%가 우울증을 호소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도 증가해 자살예방 전국연합(UNPS)에 따르면 2002년 프랑스에서는 16만여명이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중 1만 2천 여명이 숨졌다.

이에 자살예방전국연합(UNPS)에서는 자살예방의 해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격려 편지나 메시지를 한 통씩 보내는 '생명을 위한 메시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웃음클럽운동'을 만들어 '삶의 스트레스를 날리자'라는 구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선 223개의 웃음 클럽이 문을 열고 있으며 점차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에서 우울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 복지적 또는 의료적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우울증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관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 내가 읽은 책 이야기



김명진  
(문과대 3철3)

# 주변 관계에 대한 사색 통해 삶을 성찰하는 기회

서로 잡아먹기를 탐내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한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혼자의 고민으로 이것을 풀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 해결의 실마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이 책,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저자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20일을 복역하는 동안 부모님, 형수님 그리고 계수님 등 가족들과 나눈 편지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글들은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 쓴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비판 등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에 관계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사색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곳일 테다. 그러나 저자는 사색이 고독한 의지의 개인의 사색이기는 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연대감을 통해 닫힌 공간에서도 열린 정신을 찾을 수

있는 사색을 말한다.

그것이 관계가 아닐런지?

관계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구경하는 것은 그것은 외로움 일 것이며 서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경하는 자신도 잃어버리는 배반일 것이다.

그러나 관계는 참여하는 것이며, 서로의 존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대상과 내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검은 피부에 대한 말뚝X의 관계, 알제리에 대한 프란츠 파농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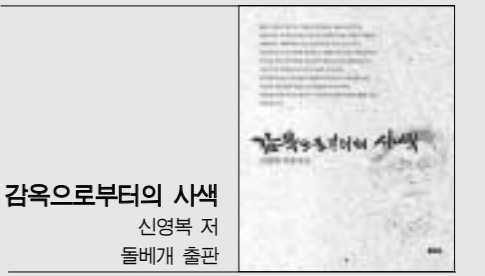
혼자 여행을 할 때 이 책을 지니고 떠난다. 스스로가 지지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나와 관계한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공기, 물, 나무와의 관계, 나와 내가 밟고 있는 땅과의 관계 등 자연에 대한 잊혀진 관점들을 이 책은 풍부히 제공해 준다.

경쟁만을 일삼는, 경제적 능력만을 일삼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의 한 구절에 담긴 의미를 음미해 보면서 마치고자 한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

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지  
둘베개 출판

# 당신의 수업은 창의력

## 미래는 '생각'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도 ... 치열한 노력 요구돼

창의력이 현대사회 최고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강조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창의력 있는 인간으로 '키워지고' 있는가. 사회진출 전 마지막 관문인 대학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이 질문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최고의 경쟁력인 창의력을 갖추어 사회에 나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대학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창의력을 갖추고 있는 지 진단해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 하면, 유용했던 지식도 쉽게 낡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이면 많은 것들이 소용없어 질 정도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지식(아이디어)이 기초가 되며, 이러한 지식에 접근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줄 아는 것이 재산이고 권력이다. '아는 것이 힘'인 정도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국가의 경쟁과 성공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 '사고' 하기 꺼려하는 대학생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점차 많은 대학생들의 생각하는 습관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

들은 사고하는 일이 아주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사고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Russell의 말을 떠올리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호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며, 더욱이 감각적인 상상이나 순간적인 재치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있는 '사고력', '창의력'은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사고를 말한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 내거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고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답이 붙어 있지 아니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지금의 급변하는 시대는 이러한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대학생들이 '사고'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가 형식과 껍데기를 중

시하고, 대학입시가 암기학습을 요구하며, 취직시험은 외워야 하는 것이고, 전략적인 사고·창의적인 사고를 대학에서는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고의 전환은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나의 변화를 주도해 주기를 바라면 너무 늦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나아가 이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고, 전략적·논리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폭넓게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면 된다'는 열정과 집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도전 정신', '비전'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하더라도, 대중해 버릴 것이 아니다. 즉시적인 미래나 '자기중심적인 터널 시각'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더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란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말씨가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해대로 많은 지식이 자신의 사고의 기반이 되게 공부해야 한다.

### 사고전략의 의도적인 노력 요구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는 '논리적, 창의적 사고의 전략'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그러한 사고의 방법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조직·국가 경쟁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대상들의 치열한 노력을 요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대학사회의 모습이길 바란다.

김영채  
계명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 창의력

창의력관련  
앙케이트 조사

## 한정된 대답 대부분 ... 창의성 부족 드러내

우리학교 학생들은 평소에 얼마나 창의적인 생



각을 하고 있을까. 본사에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생각하는 습관 등을 조사해 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는 △종이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신문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학교 자아와 선택 과목 중 '창의력 개발' 수업을 맡고있는 전광수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문제 중에서 발췌했다.

하지만 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 80%가 넘는 학생들이 답변을 2개 이상 쓰지 못했고 그 대답 역시 매우 한정돼 있어 학생들의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종이컵의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화분으로 활용 △연필꽂이 △재떨이 △실로 이어서 전화기 놓이기 △꽃받침 등의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신문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물통 말아서 감아지를 훈련 시킨다 △깔개로 활용 한다 △창문 닫기 △이불처럼 덮고 잔다 등의 답변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답변을 제시한 학생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우리 신문에서는 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 창의적인 발상과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한 김슬기(문장1), 최예원(윤리문화1), 신선혜(윤리문화2) 학생을 각각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이번 앙케이트 참여의 기회를 통해 평범한 사람로부터 다양한 발상들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말말말

- 1. 종이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 △종이컵 밑 부분에 작은 구멍들을 뚫어 휴대용 양념통으로 사용한다.
  - △평소 싫어했던 사람에게 아래 구멍을 뚫은 후 물을 따라 준다.
  - △종이컵 안쪽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만큼 휴대용 샤워기로 활용해 본다.
  - △종이컵 뒤쪽에 흡을 파서 일회용 칫솔 꽂이로 활용한다.
  - △어린 동생이 있을 시에는 종이컵 아래 부분을 잘라서 모빌을 만들어 준다.
  - △종이컵에 고무줄을 연결해 생일파티용 고티 모자를 만든다.
  - △집에서 만두피를 만들 때 활용한다.
  - △시험기간에는 종이컵에 암기사항을 적어 놓은 후 휴식시간마다 외워본다.
  - △입에 대고 오래 빨아들이기 놀이를 하면 심폐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중앙도서관에서 자신의 자리에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다.
  - △종이컵에 비닐을 씌운 후 휴대용 렌즈세척 용기로 활용할 수 있다.
  - △눈금을 새긴 후 비커로 사용한다.
- 2. 신문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 △신문지 속에 글자를 모아서 편지를 써 본다.
  - △집에서 염색이나 머리를 자를 때 신문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이를 입고 활용한다.
  - △신문지 수백장을 붙여서 배를 만들어 본다.
  - △다 본 신문들을 모아서 폐품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리는 선행도 배워 본다.
  - △두꺼운 신문 사이에 성적표를 끼워놓은 후 조용히 폐품상자에 넣어 놓는다.
  - △신문 속에 넣어 두면 냄새와 습기가 제거 된다.
  - △신문이나 책을 포장해 볼 수 있다.
  - △도서관에서 슬리퍼 대용 발판으로 활용한 다.
  - △신문지를 적정 크기로 잘라 머리를 감아 신문지와 함께 지그재그로 접으면 파마를 한 머릿처럼 연출되기도 한다.
  - △테이프를 말아서 간이 마이크로 활용한 다.

정리=기획부  
dgupress@dongguk.edu

# 학과 만나고 있습니다니까?

우리학교 창의력교육 실태분석

## 교수학습법 개발 등 지속적 연구 필요해

“벽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기해 봅시다”

수업시간 중에 갑작스럽게 던진 교수의 질문에 학생들이 당황해 하며 이것, 저것을 대답 하기 시작한다. 중복되거나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등의 질문을 합쳐 총 30여개의 답변이 흘러나온 후 교실은 어느새 침묵이 흐른다.

교수는 이러한 학생들을 보며 외국 유학 시절 자신의 딸의 유치원 수업을 참관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교수가 던진 질문과 같은 문제를 선생님에게 들은 유아원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수백개의 답변을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인 것이다.

21세기는 창의력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면 미래를 이끌고 나갈 대학생들의 창의력이 수준 이하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창의력 부족과 생각하는 능력의 저하 등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노력 부족 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대학의 교육 여건 역시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학교의 현재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교양강의의 경우 강의당 평균 학생수가 60여명이며 전체 강의 중 시간강사의 비율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강의 수를 확충해 강의당 평균 학생수를 많이 낮추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부 수업의 경우는 100여명이 넘는 학생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좌의 경우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시간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 한 강좌의 수강생이 4-50여명만 되어도 교수

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개성과 자질, 능력을 고려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강좌당 수강 학생의 수가 많아질수록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학생의 수업 이해도나 개개인의 생각 등을 측정하고 고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외래강사의 의존을 역시 학생들의 기초 창의력 소양을 위한 교양과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래강사의 경우 단기 계약직인 만큼 전임교수의 비해 교육의 연속성이나 효과, 학생의 지도나 관심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신방과, 경영학과 등의 일부 인기 학과의 경우는 전공 수업에서 역시 한 강의에 100여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대형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수업 환경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피드백이나 토론, 발표 등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 수 있는 기회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원의 수를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생 수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일부 학과에 대해서도 다음학기부터 신입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행정조직개편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의 학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얼마나 높은 취업률을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해 냈느냐가 그 대학의 성패를 좌우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생활 속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 사고에 20대 80 법칙을 적용해라

-창의력 컨설턴트 박중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면 본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들기 마련이다. 즉,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자신이 투자해야 할 20%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의 기본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집중해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인생에 있어 포기 또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집중해야 할 20%를 발견했다면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단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 이를 개발하는 것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는 밝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장점개발/현실고민과 실행계획/독서와 글쓰기

#### 항상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라

- '처음부터 기발한 놈 없다' 저자 이일경-

창의력은 ‘현실에 기초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창의력을 생각하면 엉뚱한 상상이나 발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창의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치밀하게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춘 세상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창의력을 신장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를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내고 실행계획이 없다면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끝날 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다양한 독서가 창의력의 기초

- '창의력 개발' 교수 전광수-

생활 속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평소 관심 있어 하던 분야의 책부터 시작해 점차 그 범위와 분야를 넓혀 가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신문을 읽을 때 단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자신의 견해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 기사를 비판해 보기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를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글로 정리해 보는 것도 또한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광고회사 '오리콤'의 백준호 인재환경팀 부장을 만나

## “기존의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노력 중요”

요즘 대학생들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토익공부나 전공공부에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취업 때문이다. 대학생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는 이 시점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보다 높은 학점을 위해서 또는 영어점수를 위해서 거액의 외국 어학연수 비용 부담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똑같다’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것이면 똑같이 따라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어간다. 그런데 정작 기업에서 이러한 인재를 원하는 지는 의문이다. 창의력을 중시하는 종합광고회사 (주)오리콤의 백준호 인재환경팀 부장을 만나 기업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 지 들어보았다.

-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주로 반영하는 요소는  
= 우리 회사의 경우 신입사원을 매년 선발하지는 않는다. 또한 주로 경력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 주로 인턴십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사원을 선발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보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학부시절부터 광고동아리 활동이나 광고 공모전 참가 등 광고와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활

동을 했는지를 중시하는 편이다.

- 광고인이 갖춰야 하는 중요한 점은  
=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Out-of-Box thinking’, 이것은 틀에 박힌 것을 깨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광고계에서는 흔히 ‘크리에이티브(Creative)’라고 한다. 또한 적극적인 흡수력, 열린마음과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 ‘크리에이티브’를 기르기 위한 방법은  
=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타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기존의 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우리 회사의 경우 사원들의 크리에이티브를 키워 주기 위한 회사차원의 배려로써 1년에 한 번 전체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시장을 접하고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우리회사는 워크샵을 할 때에도 최대한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인이 여행을 한다거나 혹은 일상에서의 사소한 일을 접했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기본이라 하겠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보리소

나는 향긋한 사람이 좋다

대학생, 특히 여대생들이 '보쌌'으로 사진 처리를 한다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여부를 확인하느라 학교당국이 당혹해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실 예쁜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 학생들의 그런 '작업'을 딱히 비난할 수는 없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은 감출 수가 없다. 외모를 형식으로, 내면을 내용으로 바꾸어 본다면 요즘의 세대는 형식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느라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울지는 고민조차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형식 속에 아름다운 내용이 담길 때 자신을 표현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는 확연히 두드러진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서 '향기'가 풍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이는 형식도 용도가 다하면 버려지게 마련이다. 어찌 보면 내용조차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월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는 풍겨나는 향기를 맡아보면 알 수 있다. 향기는 형식에 깊이 배일 것이요, 형식은 그 향기를 갖추어서야 비로소 형식으로 서 완성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향기를 풍길 것인가이다. 다섯 가지 향기가 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향기 '제향(祇香)', 산만한 정신을 한 곳으로 고요히 모으는 향기 '정향(定香)', 옹고 그른 것을 정확히 알아채는 향기 '혜향(慧香)', 그리고 내 자신이 목적이던 곳에 도달하는 향기 '해탈향(解脫香)', 내가 이미 도달하였음을 정확하게 알아채는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다. 다섯 가지 향기는 사람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2%이다. 2%가 부족하면 '보쌌'도 '성형수술'도 결국은 물거품이 되지 않겠는가.

이 미령
역경원 역경위원

요즘 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큰 문제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실업문제라는 것을 고려할 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실업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실업문제는 과거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과거 실업은 해외요인 또는 일시적 경기 침체에 의한 실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거나,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업문제는 이러한 일시적 경기 침체에서 오지 않고, 구조적 내부요인에서 기인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역대 정부가 매년 초 최소 6%경제성장을 예상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플기 어려운 우리나라 청년실업

그러나 미래 경제 성장은 어떠한가? 올해 예상 경제성장은 3%대이다. 최근에는 그 이하의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5%이상의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의해 생성되는 직장의 수



논단

이상현
사회과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오늘날의 청년실업, 구조적 내부요인 해결이 관건

가 취업 희망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산업을 발달할수록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량은 점점 감소한다.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의 급속한 진행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술진보가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기계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수입하여, 그 기계를 이용하여 최종 상품 생산을 하는 나라들은 중단기적으로 직장 수가 생산량 증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즉, 1% 경제 성장을 하여도 직장 수가 6만개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엔제부터인가 3D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 또는 3D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가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자기 몫 이상을 찾아가면,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그것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 다른 한쪽이 직장 갖기를 희망하나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젊은 근로자일 수 있고, 또는 가격 결정 능력을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일 수 있으며 때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다른 근로자일 수 있다.

제 몫 이상을 찾아가는 기업의 일반적 특성이 있다. 신규사원의 채용이 상당기간 늦어지고, 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청년 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두배 정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이런 이유에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 원칙적 해결에 힘써야

이러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성급한 마음에서 실업문제의 해결을 단기적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과거와 같은 일시적 경기 침체 때는 무리한 처방을 하여도 사후적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노동정책과 기업관련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2279-1270 문의·개보 : dgupress@dongguk.edu

우리 민족의 상징 소나무를 살리자!



강호덕
생명자원학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찾아 왔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으로 여느 해와는 사뭇 의미가 다르다. 그럼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까? 우리의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는 어떨까.

소나무는 은근과 끈기를 대표하는 우리민족의 얼이 담겨 있으며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잘 견디면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중한 민족적 보배 자원인 소나무가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처할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이 병은 최근 들어 점점 확산 일로에 있어 피해면적이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여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달해 소나무 70여만 그루가 이미 고사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확산될 경우 앞으로 수십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재선충병은 따뜻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머무르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백두대간을 따라 북상하고 있어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재선충병이 발견되어 현재 소나무가 절멸된 상태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의 발생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며, 이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되어 과거에 없던 질병이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소나무와 함께 생활을 해 왔다. 태어날 때 새끼줄에 소나무 가지를 걸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술가지 불을 때고, 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죽을 때 소나무 관속에서 술배에 묻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나무가 소나무이다.

또한 소나무는 우리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지조와 품격을 상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나무이다. 울창한 낙락장송(落葉長松) 소나무 숲에 감싸여 있는 우리의 전통 소나무로 만든 사찰들, 숲과 가장 친근한 종교 또한 불교이다.

올해 식목일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고유의 소나무를 살리는 해로 정하여 소나무를 온 국토에 심어 민족 정기를 새롭게 가다듬는 해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소나무 심기,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무를 심는 것은 꿈을 심고 미래를 심는 불교의 근본이 아닐까.



사회학과 학생으로 바라본 총학 정후보자 사퇴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총학 정후보자사와 사과대 후보자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지켜보았다.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 본 것이 아니라 사회학과 한 학생으로서, K 교수 문제를 풀고자 작은 노력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학과'라는 이름으로 입장 표명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2004년 25대 사회학과 학생회장이었던 현 유민지 후보는 5년간의 약 조건 속에서 힘들게 이끌어 온 K 교수 투쟁을, 어느 때보다도 올바르게 활발하게 이끌어 왔던 사람이다.

어려운 속에서 과의 구성원들을 이전보다 더 단합할 수 있게 했던 그 과정에 유 후보는, 사회학과 학생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민지라는 한 사람으로 중심에 있었다.

성추행 과오가 있는 사람이 학생 대표자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건 이후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사건을 해결해 갔느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동 선거운동본부측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반성을 하였고, 그 결과 총학 후보는 사퇴를 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 책임으로 각 선본은 성폭력 교육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고 선진물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야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옳바르다.

'함께 심는 사과나무' 선본의 사건에 대한 해결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라거나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양성평등 사업을 큰 정책으로 내세운 선본으로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수를 범했을 때에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의 비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시금 그 실수조차 실천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앞으로 활동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은 용감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함께 심는 사과나무' 선본을 지지한다. 그들의 발전하는 여성운동을 존중한다. 친구로서, 비판자로서 함께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유민지 후보를 지지한다.

김합희(사과대 사회4)

후회도 인생의 일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두고 싶은대로 두었을 땐, 진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

지난 20여 년간의 짧은 생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산다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은 늘 어렵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 믿었던 선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최악의 실수로 판명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선택 번복'을 보고 혹자는 무모하다고거나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작은 예를 통해 '자신

의 길'에 대해 회이고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마라톤에 비유하곤 한다. 마라톤이 42.195km를 완주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인생 역시 생의 시계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롯이 삶을 살아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인생은 구간 1등으로 달리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 느리고 서툴지만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리는 사람에게 갈채를 보낸다.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선택으로 인한 좌절과 눈물은 인생의 일부뿐이자 과정일 뿐이다.

지금 자신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 후회된다면 한숨만 쉬지 말고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이전 너무 늦은 것 같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으냐.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늦었다는 말인가. 지나간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한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숙할 수 있었다.

나의 졸렬한 글이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일본의 어느 프로바둑기사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두고 싶은 대로 두었을 땐, 진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

강선화(사법대 국교3)

특별 기고문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요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종교, 윤리, 정치 및 기타 모든 유행, 무형의 것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화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향을 보고 성(性)도덕의 타락이요, '망국'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항상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학내의 모든 활동이 시작되고 선후배와의 유대관계와 동아리 모임 MT로 많은 학생들이 읊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술이란 것은 대인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내 구성원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우리 학교에서는 '규정 2-1-20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장 5조'에 의거하여 여학생실에서 모든 사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상담과 조기에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범을 벗어난 성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은 여타 동물과 달리 성적욕구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를 배설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억제력을 잃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평소 서로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감정과 느낌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친밀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폭력이기에 항상 주의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마땅히 억제되어야함을 인지하여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영화나 기타 언론 대중매체는 예술이라는 성역(性域)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상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성'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성인(知性人)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겁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인지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은 날을 어둡게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멋지게 가꾸어 밝고 명랑한 젊은 한 때를 보내는 일. 몇 훗날을 돌이켜 볼 때 즐거웠던 화장시절을 보냈다고 추억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건전하면서도 지혜로운 성가치관이 확립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홍선희
여학생실 상담원

Table with 5 columns: Date (월(3/28)), Day (화(3/29)), Sunday (수(3/30)), Monday (목(3/31)), Friday (금(4/1)). Rows include Dongguk University (동국관), Student Council (상록원), Faculty (교직원), and various departments (원향, 교직원). Each cell lists activities and participant counts.

### 달하나 천강에

## 정말 '잘' 해야 한다



윤 화 영  
생명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교수

개강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간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계절 탓인지, 대학교 초의 일상적 현상의 남다른 느낌은 모르겠으나, 캠퍼스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이는 대학교수원 모두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졌음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문득 '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아주 적절하게', '만족스럽고 충분히' 등 다양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심이나 의지를 표현할 때 '잘'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 이

말을 동원하곤 한다.

일전에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아이에게 어쩔 수 없는 부모 된 욕심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고 다그쳤던 적이 있다. 그랬더니 아이는 그냥 "자-알"이라고만 대답하고 씩 웃고 만다. 한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이럴때 '자-알'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 말 본래의 의미는 아닌 듯하고 추측컨대, 단지 난처한 상황을 적당히 벗어나고자 했던지, 아니면 약간의 반항심과 짜증스러움을 제 편엔 좋은 의미의 말을 빌어 표현한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투의 말이 제 또래 아이들의 대화에서는 무슨 유행어처럼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어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말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고 새롭게 생성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요즈음 나라 안팎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조용하지 않다. 누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고자 해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지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설문조사라도 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는 올바른 생각과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

집으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잘' 하겠다는 말의 사용자나 듣는 사람의 '잘'에 대한 사용과 해석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즉 '잘'이 사전적 의미대로 바르게 사용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와 의도가 내포되어 사용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치 우리 집 큰아이의 "자-알"이라는 대답처럼.

이제 대학사회에도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우리대학교와 우리 대학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선의, 최상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현실의 직시다. 조금의 가감도 없는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구성원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수밖에 없다. 학생은 공부에 게을리 하지 않고, 교수는 연구와 강의에, 행정당국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정책개발에 올인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기서의 '잘'은 이제 그냥 '잘'만 가지고는 안된다. 진정성을 가진 본래의 사전적 의미의 '잘'이 되어야 한다. 정말 '잘'해야 한다.

### 메아리

## 보이지 않는 '투명'

▲최근 기아자동차 사태에 이어 항공 노조까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이 굶을 대로 굶어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조 간부들을 믿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의 장에 섰던 조합원들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도 모른 채 오늘날 노조 홈페이지에 들려 비난과 분노의 글을 남기고 돌아갈 뿐이다.

▲우리학교 경주캠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열린 학생 총회를 통해 2천여명 학생들의 승인을 받고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분관 점거에 돌입했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일말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교도 분명 문제였지만, 행정지원실의 점거로 수업 방해 및 행정 서비스 마비를 가져온 학생 대표들의 과도한 행동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

▲이토록 강경적으로 일관해 오던 학생대표들이 지난 23일 있었던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점

거를 해제하기로 '변신'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학교 측에서는 협의 과정을 학교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학생회 측에서는 현재까지 점거를 풀만한 어떠한 조건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나섰던 일반 학생들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어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대표들을 몰아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밝히지 않는다면 의심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국내 기업 노조들에 다시 한번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대표 역시 8천여명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자신들과 뜻을 함께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여과 없이 내비칠 수 있는 '투명성'이 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비리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활력 불어넣는 동대신문 돼야

지난 주 동대신문은 최근 변경된 연구지원 및 평가제도와 교육업 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 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기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에 사용된 어려운 단어의 경우 주석을 달아 뜻을 풀어주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아쉬웠다.

또한 종합기획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두 번째, 대외 홍보 기획 기사는 우리대학 홍보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홍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해 읽을거리가 많은 기사였던 것 같다.

한편 여론면에서 처음으로 연재를 시작한 '북극점에서 날아 온 소식'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박영석 대장 북극점 원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매우 흥미있게 읽은 칼럼이었다. 동아일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연재하고 있지만 학교신문에서 박영석 동문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지난 호 동대신문은 합리적인 비판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칭찬 받을 만 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학생회와 관련한 기사가 선거보도 단신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총학생회가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발한 활동이 없어 학생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회가 잠재된 상황일수록 동대신문이 학생회에 관심을 보이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규현(이과대 반도체학과3)

### 북극점에서 날아 온 소식 ②

## 현재 등정 상황 순조로워

"북극점을 밟으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번 외쳐 주기 바랍니다." ID가 '오슬랜드'인 뉴질랜드 주민의 응원이 눈에 두드러지는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70대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원정대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원정대는 역경속에서도 북극점을 향한 순조로운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원정 일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동아닷컴을 참조하기 바란다.

◇ 3월 11일 (원정 2일째) "온도계 모두 고장남" 밤새 텐트에서 대원을 공중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이글루에 있는 것 같다. 밤새 북극 얼음판에서 온도계가 견디지 못하고 2개 모두 고장났다. 경협상 영하 40도 정도인 것 같다. 썰매를 끌기 위해 멘 벨트를 20분도 넘게 풀었다 매달아 반박했다. 이거 풀려면 두터운 장갑을 벗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체온을 잃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

◇ 3월 15일 (원정 6일째) "밤새 2.55km 이동했다" 남풍이 불어서 우리가 텐트를 친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왔다. 밤새 2.55km를 이동했다. 바닷물이 그대로 드러난 리드는 썰매를 두 대씩 연결해 보트를 만들어 건넌다. 이도 힘들 때는 이번에 구비해온 서바이벌 슈트를 입고 건넌다.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운행복 위에 입을 수 있고 물에 들어가면 공기가 안쪽에 차서 동등하다.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 속에선 바닷물이 오히려 따뜻하다.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던 박대장이 오른쪽을 '푹'

리드에 빠트렸다. 잠시 후 박대장이 이번엔 왼발을 리드에 담겼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상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박대장은 계속 'go'다.

◇ 3월 20일 (원정 11일째) "과감하게 앞으로 앞으로" 지난밤 텐트를 친 곳은 난빙 한복판이다. 중간 중간 큰 난빙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살짝살짝 우회해서 통과하자 난빙이 즐고 구빙대가 나타났다. 북극의 얼음은 편의상 새로 생긴 신빙대와 구빙대로 구분한다. 새로 생긴 얼음은 꽤 쪽빠죽 솟은 모습에서 패기가 느껴지지만 아직 그 토대가 약해 어디서 균열이 울지 모른다. 구빙대는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래된 얼음이다.

◇ 3월 21일 (원정 12일째) "원정 중 가장 추운 날" 너무 추워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다. 숨쉬는 것 자체가 버겁다. 숨 한번 코로 내쉬면 콧털에 재빨리 물방울이 맺혔다가 찬 공기를 들이쉬면 얼어붙기를 반복한다. 콧김에 얼기 시작해 얼음 덩어리가 돼 무거울 정도다. 추위에 대처할 버너를 힘부로 켤 수도 없다. 몇 번 리드에 빠져 옷을 말리느라 추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달 30일까지 쓸 분량 밖에 없다. 예정된 보급일이 28일이다.

◇ 3월 25일 현재 (원정 16일째) "마의 북위 84도 넘었다." 22일 15.54km를 주파하며 '마의 84도'를 넘어선 뒤 24일 16.46km로 하루 이동거리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루 평균 15km 이상씩 전진했는데 원정 시작 첫 얼음 동안 평균 7.1km를 나아간 것에 비해 2배나 빠른 속도다. 현재의 페이스라면 예정(5월 6일)보다 빨리 북극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를 악물었다.

###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 진흙탕에 찍힌 바퀴 자국

이윤학

진흙탕에 덤프트릭 바퀴 자국이 선명하다. 가라앉은 진흙탕 물은 헝클어뜨린 바퀴 자국 선명하다.

바퀴 자국 위에 바퀴 자국. 어디로든 가기 위해 남이 남긴 흔적을 지워야 한다. 다시 흔적을 남겨야 한다. 물결한 진흙탕을 짓이기고 지나간 바퀴 자국. 진흙탕을 보는 사람 너리에 바퀴 자국이 새겨진다. 하늘도 구름도 산 그림자도 바퀴 자국을 갖는다. 진흙탕 물이 빠져 더욱 선명한 바퀴 자국. 끈적거리리는 진흙탕 바퀴 자국. 어디로든 가고 있는 바퀴 자국.

시집 '꽃 막대기와 꽃뱀과 소녀와'에서

절제된 이미지의 선명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네요. 이 윤학 시인의 다른 작품에서 보아 왔듯이, 사소한 일상의 것들(저수지, 도마, 목이 잘린 뱀, 폐비닐, 무당벌레 등을 선명하게 이미지화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네요.

이미지를 상대화하고, 상처를 이미지화하는 천부적인 재능의 시인이라고 생각되네요. 흔히 시인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라고도 하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시인은 잘도 보아 내고, 남들이 아프지 않는 것도 아프다고 호소하는 존재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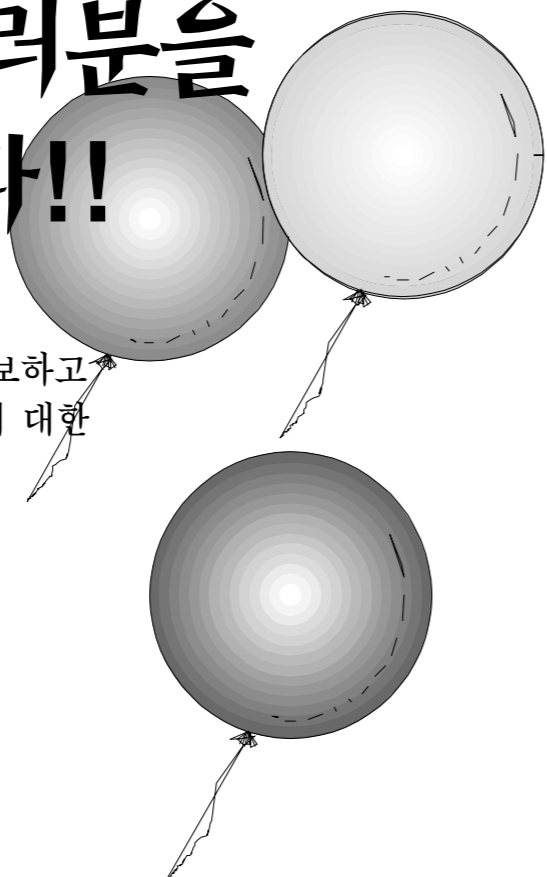
그러나 이 윤학 시인만큼 고통을 잘 견뎌 내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시인도 드물 것 같습니다. 진흙탕에 찍힌 바퀴 자국을 바라보는 시인의 뇌리에 바퀴 자국이 새겨지고, 하늘도 구름도 산 그림자에도 바퀴 자국이 새겨진다는 상상력의 증폭됨을 읽을 수가 있네요. 고통의 증폭됨을 느낄 수가 있네요.

시인의 다른 작품에서라면 흔히 상처의 이미지로 읽어낸 만도 한데, 이 작품에서는 그저 담담하게 현상만 그려내 보여주고 있군요. 절제된 이미지의 한 단면이 아닐런지요. 절제된 상처의 한 단면이 아닐런지요.

강상윤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 생협 법인 창립 1주년 행사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협 법인 창립 1주년을 홍보하고 전체 조합원들과 생협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더불어 각종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할인혜택 부여와 추첨을 통한 경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 1주년(2005년 4월 1일)기념 행사 내용

일 정	행 사 명	행 사 내 용	비 고		
2005. 4. 1 (금요일)	창립 기념식 (상복원 3층)	1) 기념식 시간 : 19:00 2) 행사 ▶ 표창(10년 근속 직원) ▶ 연회 및 생협 임직원 기념품 지급	● 동국관 식당 영업 단축 (18:30)		
	기념일 특식	1) 상복원 2층 학생식당 ▶ 육개장(2,000원) / 제육볶음(2,000원) + [음료+떡] 2) 동국관 지하식당 ▶ 손만두국(2,000원) / 불고기백반(2,000원) + [음료+떡] 3) 상복원 3층 교직원식당 ▶ 돈가스(3,500원) / 남지볶음(3,500원) + [음료+떡]	● 2,000원 메뉴 →3,000식 3,500원 메뉴 →500식 ● 음료와 떡은 3,500개 준비		
4. 1~4. 8	경품 행사	구 분	경품 내역	협 찬	● 응모추첨 4월 12일 PM2시 → 다항관 휴게실 ● 응모함 비치장소 다항관 매점 상복원 매점 동국관 매점 아리수 매점 문화관 그림 ● 3등 이상 당첨자는 생협 조합원에 한함
		1등(3명)	생활문화유적답사 여행권(세계문화유산)	생활	
4. 1~4. 8	창립 기념 주간 할인 행사	2등(1명)	4박 5일 배낭여행 자유이용권(일본)	여행사	1) 문화관 그림 원형 · 테이크아웃 커피 (1+1행사) · 말스터치 set메뉴 주문시 치킨버거 무료 · 통치킨+콜라 2잔(9,500원) → ₩6,500원 · 사이버거+콜라(3,500원) → ₩2,500원
		3등(10명)	복사카드 5,000원권 10매	복사실	
4. 1~4. 15		4등 (120명)	2만원 할인권 20명 동국 가방 50명 매장이용권 10,000원 10명 명함 무료제작 20,000원 10명 증명사진 무료이용권 20명 매장이용권 10,000원 10명	인경원 상복원 매점 컴퓨터 기획사 사진관	2) 직영매장 ▶ 매점 : 자체 할인 및 업체 할인 품목 위주로 판매 ▶ 서점 : 어학관련, 참고도서 중심으로 할인 판매 ▶ 사무국 : 36주년 4.19기념 동국인 동반대회 (생수, 음료 : 2,000개 지원) 3) 임대매장 ▶ 미용실 : 20%할인권 200장 배포(컷트 제외) ▶ 로즈버드 : 할인 판매(1,700원 → 1,500원), 사은품 ▶ 사진관 : 필름할인 판매, 사은품(10,000원 이상 구매) ▶ 다항관 문구점 : 할인 판매

동방대학원대학교 신임 총장에 선임된 정상욱(행정72졸) 동문을 만나

“동방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명문 대학 만들어 나갈 것”

“어려서부터 선전을 통해 불교와 서예 등을 배우며 꾸준히 이를 공부해 온 것이 지금의 위치에 오게 한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불·도의 동방문화와 한국불교의 전통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가 설립돼 이와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문을 열고 현재 1기 신입생을 모집한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은 우리학교 정상욱 동문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 동문은 이번 총장직 선임에 대해 그동안 동방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등의 노력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설명한다.

지난 25일, 설립 초 대학의 교표를 만들 때에도 우리 학교의 교표를 표본으로 삼아 제작했을 정도로 모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정상욱 동문을

만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학 때부터 동방문화에 관심을 가졌었는지. = 어려서부터 불교 정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서예에도 흥미를 느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동방연서회라는 붓글씨 단체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됐다. 또한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당시에 국전에서 입선하는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 동방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졸업 후 중국에서 문예미학의 갈래인 서법문학을 꾸준히 배우고 연구한 것이 지금의 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힘이 된 것 같다.

- 국내에서는 최초로 동방문화를 연구하는 대학원을 설립했는데.

=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유교와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문화의 발전과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한 만큼 문인서화를 전공하는 서법예술전공, 동방회화 전공 과정 등이 설치돼 있으며 불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불교 문화, 음악, 미술 전공학과를 개설했다. 그동안의 서화나 불교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옛것을 연구하는 데 그쳤다면 우리 대학원에서는 옛 것을 계승해 21세기에 걸맞은 문화를 만들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이에 더해 점차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걸맞게 풍수환경 전공, 역경예측 전공 등의 학과도 개설했으며, 국내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한 학과들이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 가족은 현재 3대째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우리대학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시절이던 때에는 선전이 우리 학교를 다니셨으며 나와 동생을 거쳐 현재는 나의 아들이 불교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래서인지 그 누구보다도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대한 애정과 긍지는 남 다르다.

따라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점은 학교의 전 주체들이 ‘동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집이라 생각한다. 학교의 어두운 부분만을 보고 움츠리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전 주체들이 화합한다면 민족 사회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더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고 흥미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분야에 매진해 전문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신규호 시인 등 동국문학상 수상



동국대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회장=박제천)가 제정한 제18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신규호(66·사진), 이경교(50)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신 동문의 시 ‘보라빛 마을’과 이 동문의 시 ‘푸르른 정원’이다. 한편 동국문학인상에는 최재복(75) 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6시 30분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독도출생 1호 우리학교 조강현 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지금, 지난 18일 우리학교 연극학과에 재학 중인 조강현 군이 독도출생 1호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강현 군은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지난해 7월 해병대에 입대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고수동정



△한만수(국어국문학과)=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국 아시아학회 발표 참석.



△문명대(미술학과)=다음달 2일까지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Gandara week celebration 학술발표 참석.

화학과 유국현 교수

암진단 동위원소 개발



지난 10일 암 진단에 사용되는 불소 방사성 동위원소와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학교 화학과 유국현 교수팀에 의해 개발됐다.

연구팀에서는 이번 개발로 세계의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와 불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500여개 기관에 수출할 수 있어 3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국건학 100주년을 함께 하는 사람들

김선철(북한학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장



보다 깊은 학문연구를 지향하는 이들이 모인 곳인 대학원. 많은 대학원생들이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동국대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과 더불어 대학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김선철(북한학 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대학원생 대표로서, 건학 100주년을 앞둔 학교에 제안한다면.

= 먼저 동국건학 100주년이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된 점을 배워나가는,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으로서, 100년의 역사만큼 학문의 깊이도 깊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원은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진학하는 곳이다.

최근 여러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의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취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대학에 학문 연구 분위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학원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원은 장학금, 연구여건, 복지 등에서 서울에 위치한 비슷한 수준의 타 대학만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대학도 점차적으로 대학원에 대한 재정적·환경적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이 대외적으로 입지가 굳어진다던 학교 이미지와 가치는 동반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 학내 구성원 화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 학교의 주인은 어느 한 명이 아닌 동국대 구성원 모두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이들이 서로 공생하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의 경우 학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 ‘교학협의회’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월 1회 또는 한 학기 두 번 정도씩 공식적으로 원생대표자들과 학교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져, 서로의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서로간의 신뢰 회복 및 의사소통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 대학원 발전에 있어 원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보다 나은 학문을 하기 위해 들어온 대학원인 만큼 자신의 연구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에서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건의를 해주고, 대학원 내 학술세미나, 강좌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학교·대학원간 의사소통의 장 마련돼야”

2005년 1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Table with 3 columns: 집 단 명(리더), 참가대상, 일시. Includes '대인관계향상 집단' and '발표 긴장감소를 위한 집단'.

◆ 리더 : 김혜경 (상담심리전문가) 김민정 (상담심리전문가)

◆ 기간, 횟수 및 장소

4월 11일 ~ 6월 2일까지, 매주 월(3-5시)·목(3-5시), 각 집단별 8회씩 진행, 장 소 :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

◆ 접수 및 문의

4월 8일(금)까지 집단별 10명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 구내전화 3931, 3930)

학 생 상 담 센 터

나 속의 나를 찾아 나서는 여행

- 좌선수련법회 안내 -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중심으로 하는 ‘겉으로 보이는 나’와,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나’의 두 나가 ‘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는 제한된 시간 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나이고, 속에 갇혀진 나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사는 영원한 나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영원한 나를 ‘참나’ 혹은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참나를 찾아 매주 떠나는 여행길에 전통국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좌선수련법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침 반 : 매주 수요일 오전 7:30 ~ 8:50

저 녁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6:00 ~ 7:20

지도법사 : 정각원장 진월스님

장 소 : 정각원 법당(4월말까지)

대각전 법당(5월초부터)

수련교재 : 육조단경/정학스님 역해(광문사)

시간배분 : 좌선수련 30~40분

좌선기초 및 강의 20~30분

차담(질의응답) 20분

문 의 처 : 정각원(3217) 좌선회 (3457)

동 국 좌 선 회

에코포럼 제2기 프로그램 안내

I. 정례포럼

주제 : 욕망과 생명 - 생태적 인간의 이해

○ 제7회 정례포럼 (4.16 토,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

최진아 이상 일 (동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수문학) 제1분야 발표자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동물행태학) 제1분야 토론자 조 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문화사회학) 제2분야 발표자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농업경제학) 제2분야 토론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참여불교 제가연대 공동대표/ 초전도체물리학)

○ 제8회 정례포럼 (5. 21 토, 오후 2시/ 동국대 예술극장)

예술분야 및 특별이벤트

- 기획 및 진행 : 유지나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

- 퍼포먼스, 특강, 생태영화상영, 질의 응답

○ 제9회 정례포럼 (6. 18 토/ 오후 2시)

최진아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사회사상) 제1주제 발표자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불교철학) 제1주제 토론자 임홍빈 (한신대 신학과 겸임교수/ 조직신학) 제2주제 발표자 김형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윤리학과 교수/ 프랑수아데라메트르 및 동서비교철학) 제2주제 토론자 유훈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중국철학)

II. 제2회 쟁점심포지엄

주제 : 천성산이 제기한 문제와 그 해법

일시 : 6. 4(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동국대학교 덕일세미나실

○ 제1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속선 상에서 ‘천성산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지울스님의 단식 이후, 환경정책과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색과 반성을 모색하는 자리

○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동시에 정부와 지울스님 측 공동조사단 활동이 한창인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

III. 불교생태문화답사

일정 : 4월 29일 밤 ~ 4월 30일 밤

예정노선 : 동국대~버스에서 취침~천성산입구~화엄법~천성산 정상

(내원사, 무제저널 포함)

- 인 원 : 인터넷 일반회원들 중심으로 버스 2대로 제한

- 4월 29일 밤 11시에 동국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출발

- 현지 안내 : 지울스님과 최승현 교수

- 등산 도중 아침식사와 해맞이

- 상경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토요일 오후 서울 도착

- 우천시에도 예정대로 진행

\* 문의 : 에코포럼 02-2260-8842. (홈페이지: www.eco-forum.or.kr)

피어리스 던 정기공연

### 락과 함께

### 일탈을 ...

가끔은 귀가 멍멍해질 만큼 큰소리의 음악에 몸을 내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기존 삶의 패턴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일탈이다. 그런데 음악 내에서 이러한 일탈을 맛볼 수 있는 공연이 열려 관심을 모은다.

우리학교 락 동아리 '피어리스 던'의 21 번째 정기공연이 내일(29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모던·펑크·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락 음악을 모두 들을 수 있다.

세부 연주곡은 △모던=꿈꾸는 나비(Butterfly) 등 △펑크=우리는 한마음(Rux) 등 △메탈=Crawling in the dark(Hooloa stank) 등이다. 이 중 모던 락은 서정적인 멜로디로 관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며, 펑크 락은 리듬이 간단해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특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익숙한 노래도 많이 연주한다. 재호성(광고2) 피어리스 던 회장은 "락은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흥겨운 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와 뜨거워 열기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어리스 던은 우리학교 유일의 락 중앙 동아리로서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은 20여명이다. 내년이 10주년임에도 지난학기에서야 동아리 회원들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동아리 실을 얻었지만 회원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 한 해 동안 네 번의 공연을 하는데 학교 지원금은 한 번 공연하는데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게다가 학내 연습실도 마땅치 않아 매번 사비를 들여 흥대 근처 연습실을 구하는 형편이다. 채 군은 "공연 동아리가 활동하는 데에 있어 학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심경을 토로한다.

한편 피어리스 던은 오는 5월 중순 다소 큰 규모의 락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이번에는 실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 중인 밴드들과 학내 각 단과대 락 소모임 등을 초청해 보다 알찬 공연을 준비 중이다.

일상의 변화를 잠시나마 느껴보고 싶다면, 혹은 아마추어 락 밴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락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호흥해보고 싶다면 화요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을 찾아가보자.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실생활 접목 가능한 환경 예술

## 연재기획 환경문화를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대학가에도 환경문화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이에 본지 문화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분야를 살펴보는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① 봉사부문                    ③ 미술부문
- ② 건축부문                    ④ 환경미술
- ⑤ 음악부문
- ⑥ 르포

조선시대 여류 서화가였던 신사임당은 꽃, 풀, 잎 등을 같이 만든 천연물감으로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연 물감은 이렇듯 생동감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오염을 주지 않는 매우 친환경적 요소이다. 최근에는 각종 페인트와 같은 공업용 물감 등을 비롯해 환경에 위협적인 미술용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 활동으로서의 미술이 오히려 자연에 위해를 가하면서 그 본질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미술 분야에서도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환

경미술' '그린디자인' '에코 디자인' 등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제 막 생성되는 시기라 서서히 정립해가는 분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분야의 사람들이 미술의 본질을 되살려 친환경적 미술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환경과 미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작품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환경문화 정립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창설된 사단법인 환경미술협회에는 환경과 미술을 접목시키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환경의 중요성을 높여낸 작품들을 전시하는 환경미술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이 외에도 각종 행사를 통해 미술계 종사자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작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보다 실생활에서 환경디자인을 통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이도 있다.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윤호섭 교수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생활에서 환경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직접 달력을 디자인했는데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과 해초로 만든 종이로, 인쇄는 콩기름을 통한 단색인쇄로, 그리고 종이의 재단공정을 생략했다. 이를 통해 석유자원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화려한 인쇄공정을 거친 달력보다도 훨씬 자연적으로 친근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췄다.

윤 교수는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화려하고 편의적인 삶을 추구함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폐

기하는 과정 모두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주변에 대한 약간의 성찰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조형대학 6개 학과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환경과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도록 제정돼 있다. 또한 교양과목으로 '녹색캠퍼스' 과목을 설치했으며 '그린디자인'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대학 최초로 설립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환경과 미술은 어느 전문가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닌, 어릴 때부터 생태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만 이뤄진다면 실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해 이 분야가 환경문화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민희 기자  
my705@dongguk.edu



윤호섭(국민대 시각디자인학) 교수가 직접 디자인한 재생고지 70%로 만든 엽서.

## 문화캠페인 동국인! 문화인!



투명 주차선!! 지하주차장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왼쪽) 불법주차를 해놓았다(우).

사진=문화부

## 작품 속 인물 대 인물

### 여성의 주체성



현실에서 여자로서 산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 여자로서 존재하는 것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선택과 간택 사이에서 스스로를 방관하는 그녀들의 삶은 고단했다.

감추고 싸매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치마저고리가 왜 진작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너무 오래 입었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개화된 여성성과 만난다.

토착화된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원래의 자리를 잡은 영화 속 그녀들은 권리를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되찾은 것뿐이다. 영화 '피아노'의 에이더는 여성이면서 한 남자의 아내인 동시에 미혼모라는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한계를 거뜬히 극복한다.

속박되지 않으며 욕망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도하는 에이더의 시선은 기존 영화 속에 포진하고 있던 억압된 여성성을 식민지의 잔재로 남긴 채 고도를 높여 확장한다.

그녀는 분신과도 같은 피아노에 정조 잃은 그녀 자신의 몸을 묶어서 바다 속에 던져 단죄하려 하지만 발목을 죄고 있던 끈을 풀어버린다. 바람과 간통에 이어지는 형벌 대신에 새로운 삶과 행복을 택한 에이더의 선택은 영화를 보는 듯 여성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해묵은 체제와 관습을 던져버리는 행위가 영화 속에서 보여 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듯한 해방감을 느낀다.

영화 '파니 핑크'에서 스물아홉 파니는 불면과 고민의 공간이었던 관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린다. 세상의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여성은 시각으로 짜여진 관 속의 죽은 존재 이상일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순응하고 살았던 세상의 강박관념(남자의 사랑이 여자의 전부라는 왜곡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택한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남자, 그리고 그들 없인 환골탈태할 수 없는 여자. 이들은 이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추풍낙엽 치마저고리와 함께 한 줌의 재료 영화 속 모자를 날아다닌다.

여성의 주체적이라는 남성이라는 성으로부터 동의 또는 인정받아야 설 수 없고 거짓과 곡해로부터 세워진 주체성은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에이더와 파니라는 두 인물은 성적 고정관념의 한계와 벽을 뛰어넘었으며 남성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의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 손에 쥐어야 할 것은 핸드캡이 아니라 헤게모니일 수도 있다. 에이더가 행복을, 파니가 편견을 지배했듯이.

김윤경 객원기자(영화전공 석사과정)  
agikongyong@hanmail.net

2005학년도 1학기

##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 신입생 환영 및 개강맞이 festival

2005. 3. 30(수) 오후 5시 본관 중강당

- 댄스동아리 ODC 공연  
락킹+팝핀, Don't Psh Me, 브레이크인, Dirty
- Liszt, Mephisto Waltz  
피아노 : D. Kosmachev  
러시아 모스크바 콘서트마스터 졸업, 세계 유수 콩쿨 입상  
현재 수원대 음대 교수
- 댄스동아리 AJAX 공연  
젊은피, 팝락, 질즈 댄스
- Russian Jazz Band (4인조)  
피아노, 드럼, 색소폰, 베이스 기타
- 댄스동아리 SSID 공연  
살사(rankankan → mambozart), 스윙(jump and jive)

주최 :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 경쾌한 댄스와 감미로운 재즈의 만남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특강 ①

# 문제원인 알아야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난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활용해 만족한 생활을 누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간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를 만나면 문제 자체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결과만을 선불리 판단하는 데 있다. 셋째,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이 감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기법의 활용이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이러한 포인트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어느 운송회사의 한 버스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본사 운송팀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이동국 씨는 상사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이 이동국 씨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보자.

먼저 문제를 바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있어야 할 상태(Should be)와 현상(As is)과의 차이(Gap)라고 할 수 있다. 전복사고의 예에서 있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인 안전 운행과 현재 모습인 전복 사고와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모든 요소로 폭우로 인한 시야의 방해, 운전자 부주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 등이 될 것이다. 조사 결과 문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브레이크 파열이었다.

이처럼 문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서는 문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된 브레이크 파열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제 해결이란 사고자체에 손을 쓰는 것 즉 문제의 처리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된 브레이크 파열 즉 문제의 원인에 손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3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문제해결의 구조화라고도 한다.

먼저 목표와 현상과의 차이인 문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인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 중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3가지 관점(what, where, when)에서 Is와 Is Not의 정보를 정리한다. 둘째, Is 정보의 특징과 변화를 찾는다. 셋째, Is 정보의 특징과 변화로부터 원인을 발견한다. 다음 시간에 실제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이러한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한두성**  
전략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일일 직업체험 - 방송프로듀서

# 냉철한 판단력 뒤 따뜻한 인간미

촬영장에서의 근엄한 표정과 카리스마 넘치는 말투.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고 꿈꾸던 프로듀서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보다 바쁘게 촬영장 이곳, 저 곳을 뛰어다니고 출연자와 스태프 하나, 하나를 살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프로듀서의 모습이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 같아요."

지난 24일, 평소 신문·방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듀서를 꿈꾸는 신남정(정외2) 양과 함께 프로듀서 직업 일일체험을 위해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 촬영장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여러 스태프와 출연자들을 총괄하며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듀서의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만큼, 오늘의 일일체험이 크게 기대된다는 표정이다.

일일 체험을 위해 만난 EBS의 김철홍 프로듀서는 요즘 예비 취업인들을 대상으로 미리 직업을 체험하게 해주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다.

이번 주는 대학에서 기계 설비를 전공한 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생산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다.

"바람이 차나간 장소 이동하는 동안 스태프들과 출연자들은 차에서 몸 좀 녹이도록 합시다"

촬영계획표를 꼼꼼히 살펴며 촬영장소와 소품 등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출연자와 스태프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서 김 PD의 세심함과 배려가 느껴진다. 프로듀서는 많은 스태프, 출연진들을 이끌어가는 직업인만큼 사람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촬영장에는 총 책임자인 프로듀서 이외에도 촬영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등이 항상 함께 한다. "촬영장에서는 항상 손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이곳 저곳의 구도를 살펴야 해요." 촬영감독은 처음 보는 카메라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신 양에게 카메라 기능 이것 저것을 설명해주며 렌즈를 직접 움직여 보게 한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해요. 이러한 직업의 꿈을 갖고 있다면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분야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을 활용해 경험과 경력을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예요." 김철홍 PD는 프로듀서를 꿈꾸는 많은 후배들에게 학점을 높게 받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이 직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오늘의 체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프로듀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는 점을 배웠다는 신남정 양. 오늘의 경험이 그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는 기자 bob83@dongguk.edu

## 새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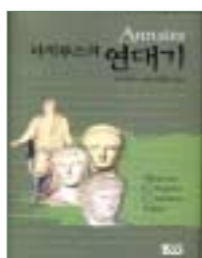
###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



지난 16일에 이어 오는 30일 두 번째로 열리는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가 이번에는 '신인생 환영 및 개강맞이 Festival'이라는 주제 아래 경쾌한 댄스와 감미로운 재즈를 결합시켰다.

본관 중앙당에서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댄스동아리 ODC 공연 △Liszt, Mephisto Waltz(피아노 : D.Kosmachev) △댄스동아리 AJAX 공연 △Russian Jazz Band △댄스동아리 SSID 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 타키투스의 연대기



이 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서거부터 네로 황제 사망까지 약 55년간의 로마 제정 초기 역사를 그린다. 이 시기의 시대정신을 '제정에 의한 자유의 억압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도덕적인 타락'이라 해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다룬다. 또한 그는 역사의 중요한 과제는 '미덕을 망각에서 구원해내고 악덕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과거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타키투스 씀, 박광순 옮김/범우/2인 8천원.

### 깨달음의 연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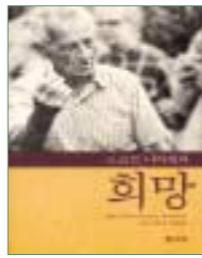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어려운 철학이나 경구없이 자신의 여행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깨달음을 풀어낸다. 누구나 한 번은 통찰하고픈 인생의 참뜻을 발견할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며, 그 방법은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임을 말한다. 저자는 이를 평생을 바친 자신의 경험을 자료삼아 찬찬히 들려준다. 각박한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게이트/유리시아/1만원.

### 여성의 힘



기존의 사회통념을 뚫고 성공한 20명의 여성들이 밝히는 실제 이야기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IT, 웰스산업, 비즈니스 예절, 이미지관리, 세일즈 등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20명의 국제적인 여성들의 좌절, 일, 가정,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메리 앨런 드러먼드 씀, 이미숙 옮김/소호스트리스/1만 2천원

### 스코트 니어링의 희망



이 책은 스코트 니어링이 82살 때인 1965년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펴낸 'The Conscience of a Radical'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40년 전에 쓴 책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문제제기한다는 것이 놀랍다. 그는 '우리 시대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를 위해 인간들이 취해야 할 7가지 조치를 제시한다. 스코트 니어링 씀, 김라라 옮김/보리/8천원.

### 일본 장례문화



저자는 지난 해 일본 장례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며 관찰 기록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본서는 일본 장례문화 이모저모를 두루 소개하면서 동시에 장례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와 삶의 지혜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장례문화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유용한 탐험기이다. 송천호, 장만석 공저/명지대학교 출판부/2만원.

## 캠퍼스 일본어

學生(がくせい)A: すみません。図書館はどこですか。  
gakusei A: Sumimasen. Toshokan-wa doko-desu-ka?

學生(がくせい)B: 図書館は明進館の横にあります。  
gakusei B: Toshokan-wa Myeongjwang-no yoko-ni arimasu.

學生(がくせい)A: 明進館までどうやって行きますか。  
gakusei A: Myeongjwang-made-wa dōyatte ikimasu-ka?

學生(がくせい)B: ここから50メートルぐらいまっすぐ行くと見えます。  
gakusei B: Koko-kara gojū mētoru gurai massugu ikuto miemasu.

학생 A: 좀 여쭙 볼게요. 도서관은 어디예요?

학생 B: 도서관은 명진관 옆에 있어요.

학생 A: 명진관까지는 어떻게 가죠?

학생 B: 여기서 50미터 정도 쪽 가면 나와요.

‘すみません’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때 쓰는 말인데, ‘저기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때도 쓴다. 위치를 나타내는 지시어는 ‘ここ’(여기)·‘そこ’(거기)·‘あそこ’(저기)·‘どこ’(어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은 ‘上(うへ)’(위)·‘下(した)’(아래)·‘前(まえ)’(앞)·‘後(うしろ)’(뒤)·‘横(よこ)’(옆)·‘右(みぎ)’(오른쪽)·‘左(ひだり)’(왼쪽) 등이다. ‘あります’는 ‘(사람이나 동물 등이) 있습니다’, ‘います’는 ‘(사물이) 있습니다’이고, ‘行(い)きます’는 ‘갑니다’, ‘見(み)えます’는 ‘보입니다’라는 뜻이다.

요시모토 하지메  
일어일문학과교수

## 캠퍼스 중국어

学生A: 请问, 图书馆在哪儿?  
xuéshēng qǐngwèn túshūguǎnzài nǎr

学生B: 图书馆在明进馆后边。  
xuéshēng túshūguǎnzàimíngjìnguǎnhòubiān

学生A: 那么, 明进馆怎么走?  
xuéshēng nǎme míngjìnguǎnzěnzǐzǒu

学生B: 往前走50米就到了。  
xuéshēng wǎngqiǎnzǒu50mǐjiùdào le

학생A: 실례지만,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B: 도서관은 명진관 뒤에 있습니다.

학생A: 그럼, 명진관은 어떻게 가죠?

학생B: 앞으로 50미터 가면 나와요.

방향은 각각 东(dōngbiān), 西(xībiān), 南(nánbiān), 北(běibiān), 前(qiánbiān), 后(hòubiān), 左(zuǒbiān), 右(yòubiān), 上(shàngbiān), 下(xiàbiān), 中(zhōngjiān)로 나타낼 수 있다. ‘往+방향’은 ‘~쪽으로’를 나타낸다. 여기서 ‘明(míng)’은 생략이 가능하다. 길 안내 시 ‘바로 거기’~이예요, ~가 나와요’라고 대답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就到了(jiùdào le)’다. 참고로 킬로미터는 公里(gōnglǐ), 센티미터는 公分(gōngfēn) 또는 厘米(lími)라고 한다.

김윤철  
외국어교육센터 중국어 강사

‘새들’은 ‘언제나 새로운’이라는 뜻의 순한글말입니다.